

KB-YMCA

라온아띠 4기 스라랑카 팀 국내훈련 지역 NGO 인턴십

아산 YMCA와 함께한
2주간의 아름답다운 이야기
- 지역과 사람

강민지, 김보람, 정동민, 한상진, 허소현

순서

1. 아산시와 아산 YMCA 소개

2. 지역 NGO 인턴십 활동 소개

3. 마치며...

1. 아산시와 아산 YMCA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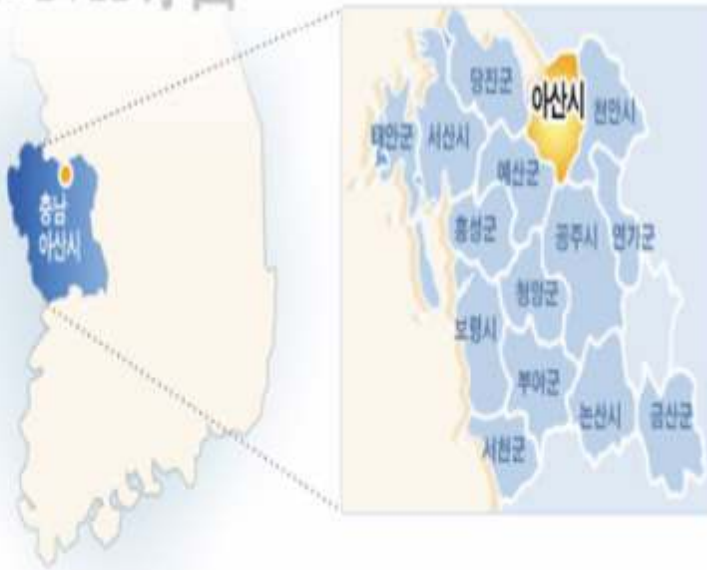
아산시를 소개 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



* 아산시는 한반도의 중앙부 및
충남의 최 서북 단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 역할을 한다.

충남과 수도권의 관문 牙山



인구 : 264,327 명
(외국인포함)
인구밀도 : 444명



일 수출액: 25,968백만원
일 수입액: 1,720백만원

* 2010년 1월 1일 기준

아산 YMCA도 소개합니다!



• 1993년 시민중계실 개소로 활동 시작

•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아산을 맑고 푸른 환경도시로’라는 기치아래 지역 시민사회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공명선거감시활동, 외암리 민속마을 군부대 반대운동, 뿌런너애육원 대책활동, 설화산 채석장 반대운동, 예산 감시활동

• 각종 생태기행 및 교육활동, 짚풀 문화제,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 시민문화학교, 마을만들기 등 전개

아산 YMCA의 주요활동

회원 사업

*회원이 주인이 되는
회원활동

시민 사업

*21세기 아산 만들기
시민운동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연대 교류

청소년 사업

*오늘의 당당한 주체로!
청소년운동

시간제 육아센터 '아가야'

*시간제 전담 육아센터를 통한
사회적 기업의 전망 모색



환경 사업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아산 만들기 시민운동

2. 지역 NGO 인턴십 활동 소개


2010. 07. 19 ~ 2010. 07. 31

지역 NGO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2010. 07. 19 월요일 + 1일 짜



아산 YMCA의
박진용 사무총장님과
이희남 감사님, 



그리고
아산 Y 가족들과의
첫 만남 :)

지역 NGO 인턴십

풍선 아트 (최은옥 선생님)

2010. 07. 20 화요일 + 2일째

첫 수업!!

같이 뛰어 놀
스라잉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열정적으로

첫 수업에

임했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전통 놀이 (이상희 -꽃다지 선생님)

2010. 07. 20 화요일 + 2일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실컷 웃고 놀 수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언어나 문화 등 우리와 많은 것이 다른 스페인어 아이들과 언어 없
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전통 놀이들을 배웠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상할라어 1~5 (산지와 선생님)

2010. 07. 20 화요일 + 2일째



인사할 틈도 없이 시
작된 상할라어 수업!!
이 날은 우리가 스리
랑카를 처음 만나는 날
이었습니다. 첫날에는
모두 열정을 가지고 수
업에 임했으나... 며칠
후엔 무등생과 열등생
이 생겼답니다 :)

산지와 선생님과 함께
출발!

지역 NGO 인턴십

한국어 지도 법 1~3 (이효희 선생님) 2010.07.20 화요일 + 2일째



아산Y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효희 간사님과 함께 한 한국어 지도 법 시간.
수업 제목은 '한국어 지도 법'이었지만 저희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배웠습니다.
스라랑카의 진정한 라온아빠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거든요 :)

지역 NGO 인턴십

종이 접기 (박희정 선생님)

2010. 07. 21 수요일 + 3일째



언어 없이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종이 접기!

종이 접기를 하며
즐거워 할
스리랑카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배웠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갈등극복 프로그램 (공감-구미영 선생님)

2010. 07. 21 수요일 + 3일 짜

집단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한 단계였고 자기주장
이 너무 강한 우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인
'공감'을 배우고 온 시간
이었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공정무역 커피숍 '다락' 방문

2010. 07. 21 수요일 + 3일째



아산시의 공정무역 커피숍 '다락'을 방문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공정무역 캠페인을 위해 관련 교육도 받고,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 받기도 했습니다. 착한 커피라서 맛 또한 참 좋았습니다. :)



지역 NGO 인턴십

축산 체험 캠프 진행

2010. 07. 22 목요일 + 4일째



학생들의 '일 선생님'으로 참가한 축산체험.

소 여물도 먹이고, 오이도 따고, 파도 뽑고, 물놀이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불리었지만, 어린이들과 같은 눈높이로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어있었습니다.

스라랑카에서도....!!

지역 NGO 인턴십

바느질/리본 만들기 (아수진 선생님) 2010. 07. 23 금요일 + 5일째



스랑카에서
파가 되고 살이 될
바느질 수업!!

여자 팀원들보다 바느질을
더 꼼꼼하게 잘하는
가정적인 남자 팀원들.



지역 NGO 인턴십

아이와의 소통 (공감-김성림 선생님)

2010. 07. 23 금요일 + 5일째

또 다시 '공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을 우리와 스페인카 현지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소통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출동! Y특공대!!

2010. 07. 23 금요일 + 5일째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상가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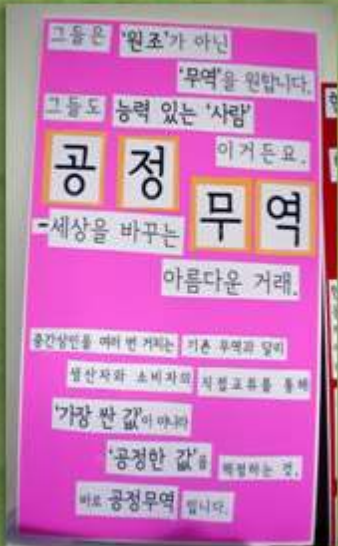
꼬리 명주 나비 애벌레 개체 수 줄이기



지역 NGO 인턴십

공정무역 캠페인

2010. 07. 24 토요일 + 6일째



공정무역이라는 말 자체가 낯선 분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공정무역 캠페인

2010. 07. 24 토요일 + 6일째



실제로 공정무역의 취지를 공감하는 많은 분들께서 피스커피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수익금은 '피스커피'에서 동티모르 아이들을 위해 진행 중인 '꿈이 자라는 그림책' 행사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공정무역 캠페인

2010. 07. 24 토요일 + 6일째

RoomAtti의

피스커피 캠페인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온아띠 4기, 스리랑카 팀입니다.



저희는 아산 YMCA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피스커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에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캠페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피스커피 시음회와 "공정무역은 ()다"에 빈칸을 채우는 등의
여러 가지 시민 참여행사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렸습니다.



출처 : www.peacecoffee.co.kr

지역 NGO 인턴십

공정무역 캠페인

2010. 07. 24 토요일 + 5일째

캠페인 현장에서 공정무역의 취지를 공감하는 사람들과
공정무역 커피의 맛에 매료된 사람들은 피스커피를 구매해 가셨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커피 찌꺼기를 넣어 손수 만든 방향제를 나눠드렸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아산의 공정무역 카페 <다락>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피스커피에서 진행중인 "꿈이 자라는 그림책" 모금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쌓여가는 모금함을 보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 활동으로 보내지는 그림책이
동티모르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안겨줄지 기대가 됩니다.



출처 : www.peacecoffee.co.kr

지역 NGO 인턴십

공정무역 캠페인

2010. 07. 24 토요일 + 6일째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만 아는 사람들
혹은 공정무역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린다는 것이
열정 가득한 초심만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을 직접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훈련과 피스커피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배운 많은 것들을 스리랑카에 나눠주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 라온아띠 4기 스리랑카팀 (강민지, 김보람, 정동민, 한상진, 허소현)

*KB-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4기 스리랑카팀은
한 달동안의 국내 훈련을 마치고,
오는 9월 8일(수) 스리랑카 현지로 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모라투와 YMCA (Moratuwa YMCA)에서
내년 2월 초까지 5개월 동안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출처 : www.peacecoffee.co.kr

지역 NGO 인턴십

아산 투어

2010. 07. 25 일요일 + 7일 짜

아산시에서 무료로
자전거 대여를 해준다
는 정보를 입수하고,
온양온천역에서 자전거
를 빌려 아산시를 돌
아봤습니다. 총무님
의 잔두지휘 아래 자
전거 도로를 따라 힘
차게 페달을 밟으며
아산의 이모저모를 들
러보는 의미 있는 시
간이었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농촌 체험 활동 (안복규 선생님)

2010. 07. 26 월요일 + 8일째



직사광선에 의해
찌뚱 같았던 비닐하우스,
밭 한번 빠지면
놓아주질 않던 논.
그래도 덕분에 쌀 한 톨의 소중
함을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장애인 자활사업장 “꿈꾸는 나무” 2010. 07. 26 월요일 + 8일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심
결에 장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들도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역 NGO 인턴십

내포 생태 교육 연구소(정재근 산지니 선생님) 2010. 07. 27 화요일 + 9일 짜

산지니 선생님의 강의는 생각의 틀을 깨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놀아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보고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는 생태체험지도자 양성 과정의 수업에 저희도 일원으로 참석해 산지니 선생님의 열정적이고 유쾌한 강의에 속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지역 아동 센터 “반딧불이”

2010. 07. 27 화요일 + 9일째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프로그램
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학년의 친구
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
움은 있었지만 “세계 모든 친구들은
소중해요!”라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의 한 마디는 모든 어려움을 날려주
는 큰 감동을 줬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생활 협동 조합 (장인선 선생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우삼열 선생님)

2010. 07. 28 수요일 + 10일째



생협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대학생들의 이모저모를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지만 파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이 사회의 약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실에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스리랑카 대사관 방문

2010. 07. 29 목요일 + 11일째

스리랑카 대사관을 방문해 '락시타 라트나예커(Lakshitha Ratnayake)' 대리대사를 만나 5개월 동안 살아갈 스리랑카 전반에 대해, 그 동안 각자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락시타 라트나예커 대리대사 역시 한국 대학생들의 자원 활동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하얀 만들레 자원활동

2010. 07. 30 금요일 + 12일째



노인요양원 '하얀 만들레'에 가서 자원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왔다가는 저희 같은 친구들은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들께 오히려 불편을 끼쳐 드릴 것 같아서 저희는 요양원 주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께서 오고 가며 물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것 만으로도 참 힘이 났고 감사했습니다.

지역 NGO 인턴십

최후의 만찬 !!

2010. 07. 30 금요일 + 12일째



잔잔잔잔 마지막 일정!! 2주 동안 텅 비어있던 저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던 선생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감사님께서서는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안 믿기는 구나, 이런 게 다~너희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이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요리하며(짬뽕, 잡채, 오삼불고기, 골뱅이 소면 등) 대접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잘 다녀와서 더욱 멋진 사람이 되어, 음식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3. 마치며...



저는 잘났습니다.



저희
스라엘카 팀은
잘났습니다.



저희
라운아미
4기
참
잘났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친구들도
잘났습니다.



이 친구도
잘났고,

저 친구도
잘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났습니다.

5개월 동안
잘난 사람들 끼리
그냥

잘 살다가 오겠습니다.

KB 그리고 YMCA

고맙습니다.

스라엘카 팀 일동 😊